

낭만주의시에 대한 자기 반성으로서 Shelley의 “Julian and Maddalo”

김 옥 수

낭만주의시는 일반적으로 자아 표출적인 시로 정의한다. 시인의 자기 표현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시론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의 경향은 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M.H. Abrams는 극단적으로 “시인의 청중은 시인 자신으로 이루어진 단 한 사람으로 줄어든다(The poet’s audience is reduced to a single member, consisting of the poet himself)”라고 말하고 있으며¹⁾, 대표적인 낭만주의 시론인 *Defence of Poetry*에서 Shelley가 “시인은 어둠 속에 앉아 감미로운 소리로 자신의 고독을 격려기 위해 노래부르는 나이팅게일이다(A poet is a nightingale who sits in darkness and sings to cheer his own solitude with sweet sounds...)”²⁾라고 말하는 것도 그러한 경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종종 인용된다.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낭만주의시인은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며 계도하는 고전주의적 목표를 포기하고 개인적인 신화체계에 함몰되어 의미의 전달(communication)을 거부한다는 비판도 낫선 것은 아니다. Wordsworth의 *The Prelude*나 Coleridge의 “Dejection: An Ode” 및 Keats의 “Fall of Hyperion”은 시인의 자아 표출의 전거로서, 시인이 자아로 침잠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시가 낭만주의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주장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낭만주의의 부분적 일면을 전체로 본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낭만주의시인도 끊임없이 자아의 표현이 시라는 견해가 내포하는 유아독존(solipsism)의 위험에 대해 반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Keats는 Wordsworth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에의 몰두를 “자기 본위적인 숭엄미(egoistical sublime)”로 비판하며, 진정한 시인은 자신의 개성을 소멸시키고 객체와 공감적 동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 또한 Shelley도 “Alastor”의 서문에서 “시인은 자기 중심적인 은둔으로 해서 억제할 수 없는 열정의 복수의 여신들에 의해서 재빨리 파멸을 맞게 된다. (The Poet’s self-centered seclusion was avenged by the furies of an irresistible passion pursuing him to speedy ruin...[p. 69])”라고 말하면서, Wordsworth류의 자아 침잠적인 시의 자기파멸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렇듯 낭만주의시의 자기 반성이 꼭 지속되었다는 사실은 낭만주의시인이 그러한 자아 침잠적인 시가 극단화될 경우의 자기도취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1) M.H. Abrams, *The Mirror and the Lamp* (New York: Oxford UP, 1953) 25.

2) Donald H. Reiman and S.B. Powers eds., *Shelley’s Poetry and Prose* (New York: Norton 1977) 486. 앞으로 인용할 Shelley의 시와 산문은 위의 책을 텍스트로 하였으며 이후 본문에는 페이지수와 행수만을 표기하겠다.

3) M.H. Abrams, et al., eds.,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4th ed., 2 vols. (New York: Norton, 1979) 873. Shelley 이외의 다른 낭만주의시인의 시나 산문은 Norton을 텍스트로 인용하겠으며 이후 페이지수와 행수만 표기하겠다.

Keats나 Shelley는 자기 표현이 시라는 견해가 자아의 편협성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전혀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 보고 시는 먼저 자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Shelley의 “Julian and Maddalo(1818)”는 이러한 낭만주의시의 자기 반성의 대표적인 예이다. 흔히 이 시는 Shelley가 시를 쓴 그 해 Byron과 배니스 근처에 같이 머물렀다는 전기적 사실 때문에 Shelley와 Byron의 사적인 대화시로서 지적된다. 이에 따르면 Shelley를 나타내는 Julian의 이상주의적 견해가 Byron을 모델로 한 Maddalo의 비관주의를 공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Shelley는 자신의 이상주의를 대변하는 Julian이 Maddalo와의 논쟁에서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것으로 결론내린다는 것이다.

그런데 Timothy Webb가 지적하는 대로, Shelley의 시는 전기적으로 읽음으로 해서 많은 폐해를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⁴⁾ 즉 시의 어려움, 의도의 다양함 등으로 인해 이전의 비평가들은 손쉽게 Shelley의 시를 전기적 사실로 읽는다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그의 시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의 여성적임, 자기 연민, 미성숙함 등의 전기적 사실을 읽으면서 시의 복잡함이나 문학적 장르상의 특성을 무시하게 된다. 따라서 Shelley시의 본질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기적 사실이 곧 시라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물론 전기적 사실이 Shelley의 “Julian and Maddalo”의 바탕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더라도 Julian이 곧 Shelley이고 Maddalo가 Byron이라고 단순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것은 인물들의 성격을 살펴보다라도 확인된다. 즉 Julian은 “악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것(to make the best of ill[47])”으로 묘사됨에서 Shelley의 여러 요소들 중 이상주의만을 구현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또 Maddalo의 인간 삶에 대한 허무함의 인식에서는 Byron의 냉소주의를 드러내나 Byron과는 달리 “절잡고, 인내심있는, 겸손한(gentle, patient, unassuming)”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더구나 이 시는 “극시(dramatic work)”이기 때문에 Julian은 Shelley이고 Maddalo는 Byron이라는 등식에서 출발해서는 두 인물의 극적 성격이나 이 시의 극적 구조를 놓치기가 쉽다. 반면에 Browning의 것과 같은 “극적 독백시(dramatic monologue)”로서 이 시를 이해하여 화자인 Julian만을 부정적으로 보는 관점도 전적으로 옳다고 할 수 없다. 즉 “Julian and Maddalo”는 화자의 오류만을 암시하는 극적 독백시가 아니고 두 논쟁자들의 견해가 서로 대립되는 “대화시(A conversation)”이기 때문이다.⁵⁾ 이러한 극적인 시는 시인과의 거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시를 면밀하게 읽으면서 두 논쟁자의 대화의 극적인 성격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 문제는 시의 서문을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서문은 Maddalo와 Julian의 성격에 대해 간략한 묘사를 할 뿐만 아니라 시인이 두 인물과 거리를 두고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이탈리아의 귀족인 Maddalo에 대한 묘사는 아이러니하게 그려지고 있다.

He is a person of the most consummate genius, and capable, if he would direct his energies to such an end, of becoming the redeemer of his degraded country. But it is his weakness to be proud: he derives, from a comparison of his own extraordinary mind with the dwarfish

4) Timothy Webb, *Shelley: A Voice Not Understood*(Manchester: Manchester UP, 1977) 7-18.

5) Earl Wasserman, *Shelley: A Critical Reading*(Baltimore: Johns Hopkins UP, 1977) 11.

intellects that surround him, an intense apprehension of the nothingness of human life (pp. 112-113).

Maddalo는 현실에 환멸을 느낀 뒤 그의 “가장 뛰어난 천재성”을 소진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그는 오만하여 주변의 다른 사람들을 하찮다고 경멸하나, 그의 오만함이 자신을 소진시킴으로서 그것은 곧 자기 경멸이 되고 있다. 요컨대 그는 주위 세계에의 경멸로 자아에 함몰하나, 그것이 자기 파괴적일 정도의 비관주의밖에 못된다는 아이러니를 깨닫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Julian은 인간 정신의 힘에 대한 믿음과 거대한 사회의 변혁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철학적인 개념에 매료된 이상주의적 낭만주의자로 그려진다 (passionately attached to these philosophical notions which assert the power of man over his own mind, and the immense improvements of which...human society may be yet susceptible[p. 113]). 그리고 그는 선이 어떻게 우월할 수 있는가를 사색하는 인물로 드러난다 (he is forever speculating how good may be made superior[p. 113]). 그러나 그를 묘사하는 philosophical이나 speculating이란 단어는 그가 실제로는 이상을 현실로 만들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을 던져준다. 더구나 “Julian은 그의 이단적인 의견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에 의해서 좋은 자질들을 상당히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경건한 독자가 결정할 것이다 (Julian, in spite of his heterodox opinions, is conjectured by his friends to possess some good qualities. How far this is possible the pious reader will determine[p. 113])”라는 언급은 Julian의 이상주의를 더 의심스럽게 한다.

현실을 이상화시키려는 Julian의 성격은 시의 첫 부분인 “나는 모든 황량하고 고독한 장소들을/사랑한다 거기에서 우리는/우리 자신의 영혼이 그러기를 바라듯/우리가 보는 것도 무한하다고 믿는 즐거움을 맛본다(I love all waste/And solitary places; where we taste/the pleasure of believing what we see/Is boundless, as we wish our souls to be[14-18])”에서 잘 드러난다. 문제는 Julian이 낭만주의의 특징 중의 하나인 인간 정신의 무한함에 대한 믿음을 사회와는 절연된 곳에서 피력한다는 점이다. 사회 개혁가로서의 그가 인간 정신의 무한함을 믿는 것은 좋으나 고독을 추구한다는 것이 그의 이상을 의심하게 한다. 다시 말해서 Julian의 이상과 실제 행동은 분열되어 보인다는 것이다. Julian은 시종 일관 비관주의적 견해를 반대하며 석양이 지는 광경을 보고서 말한다.

they were

Those famous Euganean hills, which bear
As seen from Lido through the harbour piles
The likeness of a clump of peaked isles—
And then—as if the Earth and Sea had been
Dissolved into one lake of fire, were seen
Those mountains towering as from waves of flame
Around the vaporous sun...

(76-83)

그는 Satan이 연옥에서 하듯이 “땅과 바다”를 “하나의 불의 호수”로 만드는 것과 같은 이상을 피력한다. 그러나 “as if”라는 단어는 Julian이 단순히 그런 공상에만 머물 것이라는 추측을 던져준다. 여기서 Julian이 자신의 은유적 표현에 탐닉하는 모습은 시나 상상력에

의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는 이상주의적 낭만주의시인의 전형을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때 Julian은 이상주의만을 추구해온 것으로 인식되어온 Shelley 자신 뿐만 아니라 자연에서 인간의 이상을 찾은 Wordsworth까지 포괄하는 낭만주의시인 입이 암시되는 것이다. 이러한 Julian의 이상적인 세계를 거부하는 Maddalo는 세상을 조망할 수 있는 “더 나은 장소(a better station)”를 제의하며 광인 수용소와 그것의 종각(belfry tower)을 보여준다. 이어서 Maddalo는 말한다.

And like that black and dreary bell, the soul,
Hung in a heaven-illuminated tower, must toll
Our thoughts and our desires to meet below
Round the rent heart and pray—as madmen do
For what? they know not,—till the night of death

(123-227)

Maddalo는 인간 현실의 무의미함의 알레고리로 “광인 수용소”를 보여주며, 인간의 영혼은 “하늘이 밝히는 탑에 걸린” 까맣고 음울한 종과 같은 존재이기에, 오직 탑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만 들릴 뿐인 무익한 기도를 울리게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인간이 동료 인간들로부터 고립된 존재인 까닭에 그의 영혼이 신의 섭리를 따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그 다음날 아침에 Julian은 “쾌활하고(blithe)”, “자유로운(free)” Maddalo의 딸을 언급하면서 인간의 자유 의지(human free will)를 내세운다.

it is our will
That thus enchains us to permitted ill—
We might be otherwise—we might be all
We dream of happy, high, high, majestic.
Where is the love, beauty, and truth we seek
But in our mind? and if we were not weak
Should we be less in deed than in desire?

(170-176)

Julian은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려 있으며 또한 인간의 의지는 자유롭다고 주장하며 “우리는 다르게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이처럼/용인한 악에 우리 자신을 묶는 것은 우리의 의지일 뿐이다”가 암시하는 바는 의지는 확실히 우리 인간에게 악을 가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지만이 자아가 부과한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은 아닌 것이다.⁶⁾ 다시 말해서 Julian은 무엇이든 변화시킬 수 있는 인간의 의지에 대한 신뢰를 표명하지만, 이것도 인간의 의지의 나약함에 대한 그의 불안한 인식을 드러낼 뿐이다. 더구나 Julian이 자신의 논리를 위해서 인용하는 Maddalo의 딸에게서 보는 것은 의지나 아이의 천진난만한 시각이 아니라 쾌활한 외양적인 모습일 뿐이다. 이것은 “천숙함의 막으로 눈이 흐려지지 않은 아이의 근본적인 순진함”으로써 세상의 모순을 적시하고자 한 Shelley의 입장과도 다르다.⁷⁾ 덧붙여서 Julian은 “만약 우리가 약하지 않다면 우리

6) P.M.S. Dawson, *The Unacknowledged Legislator* (Oxford: Clarendon Press, 1980) 128.

7) Timothy Webb, 앞의 글, 20.

의 행동이 욕망보다 더 적을 수 있는가”라고 말하는데, Julian은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기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Maddalo는 “만약 우리가 약하지 않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이며 인간은 얼마나 헛되이 강하기 위해 욕망할 뿐인가라는 논리를 편다. Maddalo의 “You talk Utopia(179)”라는 결정적인 발언에 우리는 Julian의 입장이 이론에만 치우친 것으로 의심하는데, 이는 곧 Julian의 이론과 행동이 괴리를 나타냄을 정확히 지적한 말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Maddalo의 태도도 지나친 비판주의 때문에 옳지 않은 것임을 또한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이어서 Julian은 “we know/That we have power over ourselves to do/And suffer—what, we know not till we try;/But something nobler than to live and die(184-187)”라며 다시 한번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으나, 여기에서도 그의 말은 do와 suffer의 병치에서 무게 중심이 suffer에 더 있는 것으로 읽히기 때문에 Julian은 사실상 무저항에 가까운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하겠다.

따라서 Julian의 낭만주의적 이상주의의 실체는 행동과 이론의 분열이 진행됨에 따라 더욱 공허하게 되고 있다. 그런 까닭에 Maddalo는 Julian의 “aspiring theories”가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 광인을 방문하자고 제안한다. 그에 의하면 광인은 그러한 이론 때문에 미쳤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Julian은 “인간 자신의 고의적인 악(man’s own wilful ill)”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그는 “악한 것에서 선의 요체를 구하는(seeks a ‘soul of goodness’ in things ill[204])” 노력의 부족으로 인해 세상이 잘못되었다고 본다.

광인의 이야기는 이제까지의 Julian과 Maddalo의 추상적인 논쟁을 광인의 고뇌를 통해서 구체화시킨다. 즉 광인의 이야기는 두 사람의 피상적인 논의를 생생한 인간적인 현실로 옮겨 놓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Julian과 Maddalo가 광인 수용소에 들어섰을 때 듣는 “가장 감동적인 멜로디의 부분들(fragments of most touching melody[221])”이라는 언급에서 시사되는 광인의 시적인 자질을 고려해보면, 광인은 두 사람에 내재한 경향들을 투명한 인물로 설정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광인의 이야기는 Julian과 Maddalo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말하는 형태이다. 또한 그의 이야기는 광인의 속성상 분열적인 구조(disjointed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광인의 이야기 중 “Nay, was it I who wooed thee to this breast/Which, like a serpent, thou envenomest/As in repayment of the warmth it lent?(398-400)”라는 부분에서는 자신이 특정한 사랑의 좌절에 의해서 미치게 되었다고 함으로써 Julian이 말하듯이 광인 자신의 고의적인 악 때문임을 밝힌다. 또 한편으로는 “Ye few by whom my nature has been weighed/In friendship let me not that name degrade/By placing on your hearts the secret load/Which crushes mine to dust. There is one road/To peace and that is truth, which follow ye!(344-348)”라고 말할 때는 이상주의적 이론가처럼 들리고 그런 측면에서는 Maddalo의 말이 옳은 듯 여겨지기도 한다.

그러나 광인이 다음처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것을 설명해야 할지 곤란하게 된다.

What power delights to torture us? I know

That to myself I do not wholly owe

What now I suffer, though in part I may

(320-322)

광인의 이야기에 따르면 Maddalo가 믿었던 것처럼 “aspiring theories”에 의해서 그의 광기

가 생겨난 것도 아니고 또는 Julian이 주장하듯이 “enchained will”에 의해서 광기가 야기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광인의 “격정에 이끌린 장황한 언변”은 부분적으로는 Julian의 의견에 맞고 또 부분적으로는 Maddalo의 생각에 부합하기도 하나 어느 쪽이 옳은지를 결정해 주지는 않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광인의 이야기가 시적이고 낭만적 좌절의 희생자가 광인이라는 점에는 의견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덧붙여 Shelley가 이탈리아에 체류하는 동안 Sismondi에 있는 Tasso의 감방을 방문하였고 또한 그에 관해 연구하고 있었다는 전기적 사실은 광인이 Tasso의 인유이며 낭만주의시인의 한 유형으로 그려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여기서 Tasso 혹은 낭만주의시인을 연상시키는 광인의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인은 그가 사는 시대 혹은 사회와 관련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하는가? Wordsworth와 같은 시인이 동료 인간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가? 시는 낭만주의시인 자신의 고통을 토로할 뿐인가?

시인으로서 광인의 언어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생각나는 대로 떠엄 떠엄 이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Julian과 Maddalo는 “이 세상의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억압들을/느끼는 과민한 신경(a nerve o'er which do creep/The else unfelt oppressions of this earth[449-459])”으로 특징지어지는 광인의 감수성에 대료된다. 하지만 광인이 “환상의 눈으로 없는 것을/볼 수 있다(could see/The absent with the glance of phantasy[445-446])”라고 말할 때, 이것은 광인의 시는 순전히 가상적인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한 억압들을/느끼는 과민한 신경”으로된 커다란 환상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환상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광인의 경우는 낭만주의시가 빠지기 쉬운 위험, 즉 상상력이 환상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을 환기시키준다.

Julian에게서 광인의 이야기는 “비탄의 격정에 이끌린 언어는 고상하였고/운율에서 시라 불릴 수 있는 그런 것이었다(The wild language of his grief was high/Such as in measure were called poetry[541-542])”. Maddalo의 시각에서는 “가장 비참한 사람들/죄에 의해 시에 입문하게 되며/그들이 노래 속에서 가르치는 것을 고통 속에서 배우게 된다(most wretched men/Are cradled into poetry by wrong/They learn in suffering what they teach in song[544-546])”. 이렇게 시인이 자신의 고통받는 영혼을 시에 쏟아놓아야 한다는 생각이나 앞에서 말한 시는 현실 속에 없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상주의적 생각은 모두 Shelley가 의도하고자 한 시관은 아니다. 원래 낭만주의시가 의도했던 바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man speaking to men)”인 시인이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을 진실되게 표현하고자 한 것이고, Shelley도 거기에 맞게 “인류의 고통과 즐거움이 그 자신의 것이 되도록(The pains and pleasures of his species must become his own[p.488])” 하여서 시인의 사회적 의무감을 강조하고 공동 사회(community)를 위해 글을 쓰며 미래의 평등 사회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다면, Julian과 Maddalo의 시관은 자아의 좁은 세계에 머물러있는 것이다. Shelley는 자아만을 표현하는 시는 진정한 의미의 시는 아니라고 본다. 즉 시인이 자기 내면으로 관심을 향할 때, 그 결과는 도피주의가 되거나 혹은 자아의 환상 세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광인도 병이 나기 전에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대단히 민감하여서 “권력자의 폭압을 듣고서도 정신적으로 상처받을 정도로” 정의로왔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그는 사회로부터 스스로 은둔하여서 “전달할 수 없는 고뇌(incommunicable woe)”를 간직하고 있는 것

이다. 이러한 광인의 성격과 관련하여서 Majorie Levinson이 지적하듯이 시는 “그들의 목적에 적대적이거나 무관심한 사회 속의 작가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해로부터 고립되거나 자신들의 고립에 의해서 이해될 수 없게 된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역사적으로 특정한 현상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⁸⁾ 광인의 경우가 예시하는 바는 사회적인 차원을 거부할 때 인간이 직면하는 것은 전면적인 소외이고, 혹은 그렇지 않은 때는 인간은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이다. 광인의 이야기는 Julian의 생각에 맞기도 하고 또 Maddalo의 의견에 부합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는 중단된다. 그러나 Maddalo는 더 깊은 산 속으로 은둔함으로써 광인의 이야기에 반응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광인과 비슷해져 감을 의미하게 된다. 한편 Julian도 “만약 내가 친척이 없는 사람이었다면/나는 사랑하는 베니스를 떠날 어떤 계획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if I had been an unconnected man/I, from this moment, should have formed some plan never to leave sweet Venice[547-548])”라며 자신의 고향인 런던으로 돌아가며 그 자신의 세계로 은둔하는데, 이것은 한편으로는 Maddalo의 생각을 시인하는 것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도 광인과 닮아 간다는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Julian과 Maddalo의 행동들이 광인을 방문한 뒤 그들의 믿음과 일관성이 없음을 Shelley는 아이러니하게 드러냄으로써 그들의 입장의 권위를 훼손시키는데, 시의 초점은 Julian의 입장이 더 결함이 있음을 폭로하는 데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Julian은 자신이 매일 광인을 지켜보며 열심히 그의 가슴의 박동을 연구하고 그의 마음의 동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가 광인을 어두운 곳으로부터 구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가 결국 떠나는 것은 이러한 생각 뿐만 아니라 앞서서부터 주장해왔던 “인간 사회가 이를 수 있는 거대한 진전”의 신념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Julian이 광인을 버리고 떠난 것은 그가 말한 “man's own wilful ill”을 스스로 저지름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자기 밖에서 악을 찾으려 했던 Julian은 그 악이 자신에게서 생김을 드러내준다. Shelley가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던 악의 문제를 여기서 다시 제시하는 것이다. Maddalo의 묘사에서 “the concentered and impatient feelings which consume him”라는 부분의 “자기집중적인(concentered)”이라는 단어는 자아를 스스로 감금하는 행위, 즉 이기주의를 뜻하는 말이다. 이러한 이기주의가 그 자신의 힘을 소진시키게 한다. 만약 이기주의만 없다면 Maddalo는 “그의 타락한 나라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capable...of becoming the redeemer of his degraded country)” 인물로 묘사됨에서 사회의 타락은 자아의 구원과 맞물려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기주의가 “개인적 행동과 일반 사회에서 타락의 원리(the corrupting principle...in private behaviour and in society)”로 인식된다는 것이다.⁹⁾

그런데 이러한 자아의 문제는 인간 개인으로서 Julian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인으로서 그와 관련되어 있기도 하다. 사실 Julian은 광인과 연관하여 고통에 빠지는 시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Julian은, 시인은 “보이지도 않고서(unseen)”, “방해받지도 않고서(uninterrupted)” “낮이든 밤이든 곤돌라를 타고서 글을 쓰거나/독서할 수 있다(..._one may write/Or read in gondolas by day or night[551-552])”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시인관은 바로 “the nightingale, who sings in the dark to cheer its own soltitude...”에서 피력되

8) Majorie Levinson, *The Romantic Fragment Poe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6) 162.

9) Webb, 앞의 글, 68.

는 생각이다. 다시 말해서 Julian은 시인 자신의 고통과 즐거움 만을 노래하는 사람임을 주장함으로써 광인과의 만남 뒤에도 여전히 독자를 의식하는 다른 전달적인 차원의 의미는 없이 자아만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아의 추구하고 관련된 계산적이고 이기주의적인 원칙은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는 것을 막는 자기 경멸로 나타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으로 바뀔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은 Webb의 다음의 언급에서 잘 지적되고 있다.

Self-contempt and its outward projection, hate, are both products of the dark idolatry of self. If that grim religion can once be overthrown and man can see himself for what potentially he might be, the idols can be broken, the fiend expelled from the garden and a paradise regained within.¹⁰⁾

Webb에 의하면, Shelley는 이기주의가 인간을 속박하는 것이며 또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것이라 본다 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Shelley는 “비개성적인 시론 (impersonal poetry)”을 주창하는 것이며, 시는 개인을 고독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시켜서 인간을 서로 서로 형제처럼 연결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Shelley는 이렇게 개인의 고통을 가속화시키는 자아의 거대한 성을 부수는 일을 시가 말아야 한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Julian and Maddalo”는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Wordsworth와 Coleridge가 걸었던 개인의 자아로 침잠하는 시의 유형을 비판하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게 된다.

시의 끝 부분에서 Julian은 몇년 뒤 베니스로 돌아온다. 그리고 숙녀로 성장한 Maddalo의 딸에게서 광인과 그의 연인이 다시 만났다가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Julian은 그녀에게 이후의 사건을 계속 물어본 뒤 겨우 그것을 듣게 된다. 그러나 그는 독자에게는 그 사실을 알리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시는 충분한 이야기를 밝히기를 거부하는 태도로 끝을 맺는다 : “I urged and questioned still, she told me how/All happened __but the cold world shall not know(616-617).” 이러한 시의 결론 유보는 광인의 사례의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그 비극을 인간 조건의 대표적인 예로서 특징지우면서, 또 한편으로는 낭만주의적 이상주의자로서 Julian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시킨다. 즉 Julian의 침묵은 인간에 대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한, 상상력의 허구성만을 드러내버린 이상주의적 낭만주의시인의 전형이 자신임을 폭로한다. 또한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광인이 그에게 준 혼란을 면하려는 변명에 급급한 나머지 광인의 이야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다.¹¹⁾ Richard Cronin 같은 비평가는 이에 대해 Julian의 인간에 대한 이전의 무한한 믿음이 몇 사람을 제외할 모든 인간들에 대한 불신으로 변해버렸다고 말하는데¹²⁾, 이는 시인으로서 Julian의 독자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새로운 문학적 요소로 잘 설명해주고 있으나 애시당초 서문에서 Shelley가 암시하는 바를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시 말해서 Shelley가 서문에서 “광인의 고뇌의 연결되지 않은 절규가 모든 가슴의 텍스트에 충분한 논평이 될 것이다(the unconnected exclamations of his agony will perhaps be found a sufficient comment for the

10) Webb, 앞의 글, 68.

11) Timothy Clark, *Embodying Revolution: The Figure of the Poet in Shelly*(Oxford: Clarendon Press, 1989) 197.

12) Richard Cronin, *Shelley's Poetic Thoughts*(London: MacMillan, 1981) 129.

text of every heart)”라고 한 주장은 시인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텍스트를 논평하는 비평가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Shelley의 이러한 발언은 독자가 자신에 대한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시 내용 속으로 들어와서 시인의 말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함을 뜻한다.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시에 의한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Shelley가 시를 그렇게 끝마친 것은 대개 흥미있는 이야기 만을 전달받으려는 당대 독자의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독자가 자신의 태도를 반성하도록 하여 시 내용 속으로 뛰어들기를 의도한다고 볼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그러한 태도 이면에는 시인이 점차 자신의 목소리가 사회에 의해서 경청되지 않는다는 불안감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는 점이다.

이 시가 인간 잠재력에 대한 무한한 믿음을 표명하나 결정적인 순간에 광인의 고통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는 Julian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시인이 사회 현실 속의 다른 동료 인간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자신의 자아에 침잠하는 경우에, Julian이 Maddalo의 말에게서 이야기를 거부당한 것처럼 독자로부터 외면당하는 자기소외의 길 밖에 없다는 점으로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이 시는 그러한 시인은 자아로의 침잠을 이상적인 것으로 여기지만 그것이 인간의 내면의 진실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만을 드러냄을 보여준다. 즉 그러한 고통을 회피하는 시는 Julian의 경우처럼 자기 위선적이거나 허구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구나 Shelley는 자아 함몰적인 시가 당대의 경제적인 차원과도 연관되어 있음을 시사한다.

“Poetry, and the principle of self, of which is the visible incarnation, are the God and the Mammon of the world(p. 503)”

Shelley에 의하면 “자아의 원칙”이 경제적인 차원에서 현현된 것이 금전이고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금전만능주의를 추구하게 하여 “Mammon”이 세상의 신으로 군림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산업혁명과 자본주의 경제가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지 못한 것도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과도한 이기주의적 원칙 즉, “자아의 원칙”에 기인한다고 여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진정한 시는 “자아의 원칙”을 배제한다고 Shelley가 말할 때, 이는 자아 침잠적인 시와 이데올로기적인 자본주의적 경제가 똑같은 차원의 인간소외적인 것임을 암시한다. 더 나아가서 Marilyn Butler가 문학을 불합리하고 내성적인 것으로 보는 개념이 이데올로기적임을 Shelley가 알고 있었다고 올바르게 지적하듯이¹³⁾, Shelley는 이상주의적 낭만주의가 주장하는 자아 침잠적인 시가 지배 이데올로기에 봉사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Shelley는 프랑스 대혁명과 산업 혁명 이후에 낙담과 좌절 속에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자연이나 자아의 깊은 내면 세계에 몰입하는 유형의 낭만주의시를 자기도취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Shelley에게서 시란 낭만주의 시대의 특징으로 알려진 자신의 울분을 토로하는 것이 아닌 자아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다른 인간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야기시키는 사회 현실을 변혁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Shelley가 사회 변화를 강하게 희망하고 있지만, 그의 말을 들어줄 독자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자기 소외가 그가 직면한 현실이다. 그리하여 “Julian and Maddalo”도 그가 겪는 “the conflict between revolutionary expansion and energy and the self-doubt induced

13) Marilyn Butler, *Romantics, Rebels and Reactionaries*(Oxford; Oxford UP, 1981) 186.

by social isolation”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¹⁴⁾ 이렇게 볼 때 Byron을 나타내는 것으로 여겨지는 Maddalo도 Shelley 내면의 자기 의심이나 회의주의를 표현하는 것이고, Julian은 자신의 이상주의를 피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게 된다. 시의 후반부에서 그 두 인물이 서로 닮아가거나 또 Maddalo는 사라지고 Julian만이 끝에 등장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는 Shelley 자신에 대한 self-irony가 되는 셈이다. 바로 이런 점 즉, 다른 낭만주의 시인들 뿐만 아니라 Shelley 자신도 객관적으로 비판한다는 사실이 이 시가 낭만주의시에 대한 자기 반성예의 충실함 뿐만 아니라 당대의 현안에 대한 역사적인 충실함과 인간의 내적 혁명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14) Butler, 앞의 글, 154.